

제일은 사랑이다

본 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1. <제일(1)>은 사랑이다. <제2>는 ‘휴거’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시대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2. <사랑>하면,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로 인해 ‘소망’도 이뤄지게 된다. 고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다.
3.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도 사랑해서 보내 주신 것이다.
4.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다. 고로 <제일>은 ‘사랑’이다.
5. <하나님의 최고 희망의 법, 소망의 법>도 역시 ‘사랑’이다.

6. <천지 창조의 근본 목적>도 역시 ‘사랑’이다.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천지도, 인간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7.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며 살고, 영으로도 신부의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그 목적을 두고 천지도, 인간도 창조하셨다.
8. 주를 향한 사랑, 형제들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깨지면 모든 화목도 깨지고 역사도 깨지게 된다.
9. <사탄의 최고 전략>을 알아야 된다. <사탄의 전략>은 ‘사랑이 깨지게 하는 것’이다. 낙심하게 만들고, 유혹되어 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주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10. <주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 ‘사랑’이 깨진 것이다.
11. 사탄은 천사일 때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목적, 인간의 창조>를 그렇게도 막고 반대했다. 왜? 하나님을 ‘신랑 입장’으로 본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애인, 상대 신부급’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녀급>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대체>로서 창조됐다. 고로 하나님은 그 육신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그 영을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그러니 천사들이 질투한 것이다.

자기와는 다른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인간에 대한 질투였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면, 천사들 역시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는 마치 부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질투하는 것과 같다.

12.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모르고 자기 주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들을 꾀고 유혹한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13.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앞에는 사탄과 싸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과 <주>만 사랑하면 사탄을 이긴 자가 되기 때문이다.

14.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면, 사탄과 싸울 것이 없다. 아예 사탄이 올 수가 없다.

15. 왜 <사랑>이 ‘최고’ 일까? <인간>끼리도 ‘사랑’이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없다. <믿음>이나 <소망>만으로는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다.

16. <사랑>이 깨지면, 만사의 모든 것이 다 깨진다. <믿음>도 깨지고, <희망>도 깨지고, <약속한 것>도 깨지고 다 끝나게 된다.

고로 <사랑>을 지켜야 된다.

17.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사랑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

18. 하나님과 주와 유일하게 동등권이 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곧 <사랑>이다.

19.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과 동등권의 사랑이 된다.

20. 섭리사는 <사랑>을 뺄 수 없는 ‘사랑 휴거역사’ 다.

21.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된다.” 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쟁과리를 때리는 것’ 과 같다고 했을까? 쟁과리와 어울리는 소리가 같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만, 쟁과리만 계속 때리면 ‘싫은 소리’ 가 난다. <쟁과리 소리>와 같이 <사랑이 없는 소리>는 ‘싫은 소리’ 라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싫다는 것이다. 고로 천사가 말을 해도, 신비한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싫다는 것이다.

22.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

23. <사랑의 승리>를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

24.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

25. 예수님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고, 표적을 일으킬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다.

26.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며 했어도 몸만 불타고 끝난다. <사랑>이 그리도 크다.

27.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하면, 금이 변하지 않듯 변함이 없다.

28.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진실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다. <진실한 사랑>을 하면, 상대가 오해를 하고 화를 내도 무조건 참고 견딘다. 참지 않으면, 사랑을 뺏기기 때문이다.

29. 이 시대는 자기가 <사랑 덩어리, 사랑체>가 되어 버리면, 참고 견딜 것도 없다. 그러니 아예 <사랑 덩어리, 사랑체>가 돼 버리면 된다.

30. <사랑> 때문에 이상세계를 이루게 되지만,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기도 한다.

31. <사랑>에 성공하면 이상세계를 이루고, <사랑>에 실패하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기도 한다.
32. <사랑>은 착하고 온유하다.
33. <사랑>하면 ‘투기(妬忌)’를 안 한다. 고로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뭉개려고 하지 않는다.
34.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는 질투하지 않는다.
35. <투기하고 시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도 “투기, 질투,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했다.
36. <사랑>은 ‘자기 자랑, 지나친 자랑’을 안 한다.
37.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38. <교만함>과 <담대함>은 다르다. <자기가 한 것>으로 알면, ‘교만함’이 생긴다. 고로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는 것>은 눈에 확 띈다.
39. <교만함>을 없애려면,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된다.
40.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을 알아

야 된다.

- 41. <사랑>은 무례하게 선(線)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행하지 않는다.
- 42. <사랑>은 무리하게, 무력적으로 하지 않는다.
- 43. <사랑>은 ‘하나님 본질의 마음’이다. <참된 사랑>은 ‘선(線)’을 넘어서 행하지 않는다.
- 44. <자기>만을 위해, <자기 유익>만을 위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벗어난 것이다.
- 45. <사랑>하면, 성질을 내지 않는다.
- 46. <사랑>하면, 혈기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
- 47. <사랑의 본질>을 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를 낸다. 이런 자는 ‘미련한 자’다. <사랑이 약한 자>다.
- 48.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
- 49.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버려야 된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무지 속에 상극 세계가 일어난다.

50. <미워하는 마음>이 올 때는 상대를 하나님으로 보고 주로 보면 된다.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해가 된다.
51.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52. <의인들>은 ‘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며,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일’이다.
53.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54.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폐하듯이 <참된 사랑>으로 모든 것의 완성이 이뤄진다.
55.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다. 이와 같이 <사랑>에 있어 장성해야 된다.
56. 하나님은 “<제1>은 사랑이다. 그리고 <제2>는 휴거다.” 말씀하셨다.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서 말한 ‘휴거’다. 그래서 <제1>은 ‘사랑’이요, <제2>는 ‘휴거’다.

57. <사랑>과 <휴거> 외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5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셨다. <사랑>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59.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이시다. 고로 <사랑>을 떠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할 말이 없다.” 하신다.
60.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다.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뤄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61.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미워해도, 욕해도 사랑을 해주신다.
62.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지옥>은 타락한 영, 루시퍼로 인해 생긴 세계다. 이곳은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해서 가는 세계다.
63. 명태가 썩으면 그 자체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지, 누가 명태에 구더기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지옥>도 자기

가 만들고, 자기 행위대로 가는 것이다.

64. <천국>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의를 행함으로 가는 것이다.

65. 육신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보낸 메시아를 사랑하며 살면, 그 행위대로 ‘신부의 영,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에서 삼위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육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66.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 고로 하나님은 4000년 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할 일을 다 할 수 없었다. 고로 “내가 다시 와서 또 하리라.”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 다시 오셔서 지금, <마지막 역사>를 펴 가고 계신다.

67. <구약 4000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자녀 입장>에서 사랑해 주시고 역사를 펴셨다. <마지막 성약역사>에서는 <신부 입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룬다. 이 역사는 천 년 동안 진행된다.

6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은 ‘사랑’으로 이룬다. 이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사랑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다.
69.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것이 마치 ‘남녀의 사랑 관계’와 같다.
70. <영>은 ‘금단의 열매’가 있지만, <육신>과 같이 이성 관계를 하지는 않는다. <영의 세계>는 육신같이 이성 관계를 하는 세계가 아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71.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72. 하나님과 사랑을 맺고 타락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복직할 수 없다.” 말씀하신다. 타락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73. <성령님>을 대할 때도 ‘여성 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자 성령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적인 사랑이 아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주체자’ 이시다.
74.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동등권이다. 너희들이 신부 입장이면, 나는 신랑 입장이다. 이것을 알고 대하여라.” 하셨다.

75. <믿음>, <소망>도 필요하지만, <제일>은 ‘사랑’이다.
76. <사람>끼리도 ‘사랑’이 아니면 한 몸이 될 수 없고 혈통이 이뤄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실한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의 혈통’이 맺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황금성 천국>에 갈 수 없다.
77. 영계에 가 보면, <구약 영계>가 따로 있고, <신약 영계>가 따로 있고, <성약 영계>가 따로 있다. <황금성 천국>은 ‘성약 신부 역사’에 와서 시대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다.
78. <사랑>이 언제나 제일이다.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니 끝나 버린다.
79. <사탄>은 항상 사랑을 깨뜨리고, 막고, 방해한다. <사탄>을 깨부수고 이기지 않고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80.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행해 나가면,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다. 고로 ‘이긴 것’이 된다.
81. <사랑의 승리>를 해야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

82. <사랑>만으로 ‘하나님과 동등권의 상대’가 된다. 이는 <하나님>과 똑같은 주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83. <동등권의 사랑>을 가지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어야 된다.
84.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래야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게 된다.
85.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의 목적>이고, <신부들의 목적>이다. 곧 ‘사랑의 목적’이다.
86.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는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사랑에 성공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기 때문이다.
87. <예수님>도 ‘사랑’에 성공했다.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사랑’을 꺾고 굴복하지 않았다.
88. 결국 <메시아>는 ‘사랑의 성공자’가 된다.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도 ‘사랑의 성공자’가 된다.

89.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휴거된 자들>이 사랑에 성공한 자다.
90.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이 변화되어 황금성 천국에 간 것이 <사랑 휴거>다.
91.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역사, 사랑의 시대>가 와야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이루신다.
92. <때와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혼인 잔치 하듯이, 하나님도 이와 같이 ‘때’에 맞춰 역사를 해 오셨다.
9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조들이 꿈꾸던 이상세계가 지금! 실체가 되어, 누리며 살고 있다.” 하셨다. 지금! 표적의 역사, 이상의 역사, 꿈에 그리던 역사를 이루고 살고 있다.
9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역사>는 그것이 크나 작으나 무조건 ‘표적의 역사’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표적의 사람’이다.
95.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랑 천국>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96. <생각,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97.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계속 ‘안 되는 세계’로 기운다. 고로 안 돼도, 자꾸 밀어붙이고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98. <주>는 ‘사랑 천국을 이루는 자’로 오셨다. 그는 ‘사랑 천국의 씨앗’이다. 씨앗이 점점 커서 큰 거목이 되듯이 <시대 역사>도 그와 같이 40년이 지나 거목이 되었다.
99. <자료>가 있어도, 안 쓰면 그대로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자료’다. 우리도 ‘사랑의 자료’다. 둘이 일체 되어 만들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이 이뤄진다.
100.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왔어도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의 세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시대에 와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시대 주인>이 돼서 ‘사랑의 세계’를 이루며 가고 있다.
101.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고로 사랑을 꼭 이루신다.
102. <사랑의 본체>가 아니면, 이를 수가 없다. <본체>를 통해 ‘대상체’도 이뤄 나간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103.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인생 일생도 못 가고 끝난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영원히 가는 세계’ 다. 이 사랑의 세계를 꼭 이뤄야 된다.
104. <사랑>이 없으면, 사망으로 간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정없이 심판을 하신다.
105.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때려서라도 사랑을 위해 살게끔 하셔서 구원을 시키는 역사를 하신다.
106.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라.